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

### 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유가족 유공자 인정 가맹법, 가맹본사 상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여당의원 퇴장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 부하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부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

에 특히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볼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속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민주묘지 참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자들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윤상원, 박기순 열사 묘소를 참배한 후 묘비를 살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회의장 중립 없다” 민주 후보들 강경 발언

### 정성호 “중립이론 아무것도 못해” 조정식 “대표·당과 호흡 맞춰야” 우원식 “약한 자들의 강력한 무기”

차기 국회의장 출마의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제22대 국회도 극단의 정치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다수의 대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5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지만, 23일 국회의장 경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 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소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으로도 변지는 분위기다.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라 전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균형감을 갖추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불문율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자칫 정치 문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장과 김진표 의장이 기계적 중립에 매몰되는 바람에 야권 진영에서 바라는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더 크다.

그만큼 선명성을 지닌 인물이 국회의장이 돼 민주당의 입법 과제와 특검 등 각종 현안을 최대한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인 것이다.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돼 역시 최다선인 6선에 성공한 추미에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데다 제때 (입법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직 도전이 점쳐지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에 중립은 없다"며 "정치적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전남 출신 당선자 등과 지역 현안 파악하겠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광주 방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지역 조직을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조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지역 공약을 낼 수도 없었고, 낼 필요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광주·전남 출신 당선자, 당직자, 당원과 함께 지역 현안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민주 원내대표 불출마...박찬대로 교통정리

4·10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3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이후 두 주,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며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 더 많은 당원,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전 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 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가겠다"고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경고, 민생과 경제, 복지 문제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를 포함해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교섭단체를 이룰 것이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웠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 둔 많이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강조했다. "당원"에 초점을 맞춘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원내에서 조율 및 협상이 주된 역할인 원내대표로는 나사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원내대표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에서 친명계 주자는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